

수십만원 드는 영유아 RSV 예방주사…부모들 ‘부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생후 6개월 미만 중증 진행 위험 높아
보호자들 “필요성 알지만 가격 고민”
전남광주 의료기관 1회 50만~60만원
예방 선택지 확대에도 비용 부담 여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유행을 앞두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영아의 중증 RS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항체 주사가 국내에 도입됐지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RSV는 영유아

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특히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영아는 감염 시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영아의 RS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장기지속형 단클론항체인 ‘베이포투스(니르세비맵)’ 등이 사용되고 있다. 백신과 달리 항체를 직접 투여해 일정 기간 감염에 따른 중증화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베이포투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으며 한 번 투여하는 데 수십만원이 필요하다.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 등을 보면 전남광주 지역 베이포투스 비용은 1회 기준 60만원 안팎에서 최대 60만원 수준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100mg 기준 4만3천929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가족보건의원은 55만원, 광주센트럴병원 100mg 기준 60만원으로 공개돼 있다. 다만 진찰료 포함 여부와 실제 투여 가능 여부 등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RSV 예방 필요성을 알고 있더라도 수십만원을 한 번에 지출해야 해 투여 여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출산 이후 예방접종과 육아용품 등 각종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생후 어린 자녀를 둔 이모(40대)씨는 “아이가 어리다 보니 RSV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

고 예방주사를 알아봤는데 가격이 50만~60만원 정도라고 해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며 “아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 안 맞히기도 불안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영유아 RSV 예방 선택지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 베이포투스에 이어 올해 한국MSD의 장기지속형 예방항체 ‘엔플론시아(클레스로비맵)’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국내 기업의 예방항체 개발도 진행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RSV 예방항체 후보물질 ‘RSM01’의 글로벌 임상 1b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예방항체가 등장하고 국내 개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

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크다. RSV 예방항체가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보호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일반적인 필수예방접종과 달리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투여를 원하는 보호자가 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RSV는 영아의 출생 시기와 중증화 위험 등을 고려해 적절한 예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방 효과와 함께 보호자들의 비용 부담도 큰 만큼 향후 국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질병 특성과 예방 효과,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차선 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 보험금 챙긴 조폭 등 11명 송치

4년 6개월간 총 11차레…8천만원
역할 나눠 사고 위장·상해 부풀려
전남경찰 “보험사기 근절 엄정 대응”

전남광주 목포 일대에서 차선 위반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조직폭력배와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목포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A(25)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6개월 동안 목포 일대에서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레에 걸쳐 약 8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포지역 폭력조직인 서산파 행동대원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전에 역할을 나눠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한 뒤 다른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으며, 사고 이후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전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수개월 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해 고의 사고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감청 결과, 진료 내역 등을 분석했다. 또 A씨 등 핵심 피의자 4명

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추적해 보험금 분배 상황도 확인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공소청,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이재원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에 대해 공소청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공소청은 지난 2일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정호)에 양형 부당과 일부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납치 과정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증거 제시한 케이블타이는 범행 도구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기 차량 조수석 문 수납함에 케이블타이가 든 지퍼백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해당 케이블타이의 증거 인정 여부와 함께 사형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



‘당신의 삶을 쉬게하라’ 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당신의 삶을 쉬게하라 - 2026 광주 웰니스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애프터 런 요가(AFTER RUN YOGA)를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GGM 노조, 閏 시장 면담 촉구…“불응 땐 파업 확대”

간부·순환파업 이어 전면파업 예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노조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파업 확대를 예고했다. 5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GGM지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 노사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최다주주인 특별시가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GGM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발령했다. 노조는 민 시장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GGM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을 계기로 21일간 이어온 전막농성을 중단하고 사측과 집중교섭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8월12일 기자회견과 시장 정무보좌관 면담을 통해 민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같은 달 27일부터 광주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이날 민 시장에게 직접 면담에 나설 것과 GGM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시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노사관계 정상화, 주간 2교대 시행 및 추가 차종 투입 등도 촉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시장 면담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조합원 순환파업, 전면파업 등 단계적으로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